

# DS 특별성과급 급한 불 껐지만... DX·비메모리 불만은 숙제

OPI 유지하고 DS 특별성과급 도입 사업성과 10.5% 재원으로 마련 DS 40% 공동·60% 사업부별 배분 찬반투표·내년 적용방식 변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이란 과국은 피했다. 다만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적자 사업부 배분 유예 등을 둘러싸고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조직 내부 갈등과 성과급 재원 부담 등은 향후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자며 내부 결속과 합의안 추진을 당부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 43분경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당장의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잠정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수용한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유예 문제 역시 내년 이후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점은 향후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DS(반도체) 부문 성과급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면 스마트폰·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DS 내부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60%를 반도체 부문내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 안팎이다. 이 경우 반도체 특별 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5000억원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 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부 간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다"며 "DS 내 메모리사업부는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반면 비메모리사업부에서는 최소 1억6000만원 수준의 성과급도 부족하다며 부결 의견을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총파업을 막는 절충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부 갈등 관리와 산업 경쟁력 회복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측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내부 분위기 수습에 적극 나섰다.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사내 담화문에서 "비록 협상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회사를 위한 마음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전 부회장은 노조측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노조와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파업 털고 30만전자 '눈앞' AI 메모리로 50만전자 시동

증권가, 목표가 최고 57만원 제시 AI 추론 확산에 메모리 호황 장기화

"경기민감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로 재평가해야 한다."(노무라)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골드만삭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지난 20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선 '50만전자'를 내거는 등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파업 이슈가 해소됐고, 글로벌 메모리 호황이 2~3년 더 지속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강력한 엔진은 한국증시 시가총액 700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이제 코스피는 '1만피(코스피 1만)'라는 미담의 고지를 향해 역사적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8.51% 급등한 29만9500원에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5월 기준 서버 및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량 성장률이 각각 22.3%와 41.5%로 높았던 기저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기존 22.1%와 39.1%에 비해) 추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사양 스마트폰 감소로 오히려 모바일 디램(DRAM) 평균 탑재량이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엔비디아 베라(vera)의 본격적 저전력 디램(LPDDR·SOCAMM) 수요 잠식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5만원으로 제시했다. 류형근 책임연구원은 "파업 이슈를 제외하면 업황 기초 체력이 매우 견고하며, 특히 AI 추론의 확산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었다"며 "수요와 공급의 성격 변화가 이끄는 사이클의 축소와 성과급 구조 변화, 그리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가져올 설비투자 규율의 강화가 산업 가치 재평가를 지속해서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54% 상향한 57만원으로 제시하며, 삼성전자를 섹터 내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김센터장은 "파업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 대비 주가가 눌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해소 시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과 내일을 잇고  
일상과 기술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LX의 모든 연결,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

**있다 - 있다**  
사람을 향한 미래

LINK FOR NEXT

LX인터내셔널

LX판토스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LX글라스